

롯데정보통신 (286940)

SW/SI

이창영



02 3770 5596

changyoung.lee@yuantakorea.com

투자 의견	BUY (M)
목표주가	55,000원 (M)
현재주가 (1/3)	36,400원
상승여력	51%

시가총액	5,604억원
총발행주식수	15,396,331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20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54,003주
52주 고	44,050원
52주 저	33,400원
외인지분율	1.44%
주요주주	롯데지주 외 9인 64.99%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5	3.1	(9.3)
상대	0.8	4.2	(12.8)
절대(달러환산)	0.5	2.8	(17.4)

세가지의 새로운 성장 엔진 장착

전기차 충전사업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한 중앙제어의 '전기차충전기 제조' 관련 매출액이 현재 시장점유율 20%를 기준으로 해마다 약 700억원의 매출액이 신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기차충전기 운영' 시장은 전기차 20만대 기준으로 약 800억원(= 20만대 X 한해 평균 운행거리 1만Km X 250원/kWh X (1/kWh당 평균연비 6.3km))으로 추정되며, 국토교통부 추정 2025년 순수전기차 113만대 기준으로 연간 약 4,500억원 규모가 되어 롯데정보통신에게 연간 약 1,000억원 전후의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커머스, 광고, 게임, 엔터 시장으로 롯데그룹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사업과 (홈)쇼핑 부문에서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신규분야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롯데건설), 메타버스 영화관(롯데시네마), 카드/캐피탈 등 가상 금융점포 등 전 롯데그룹 계열사에 도입/적용할 것으로 예상.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비용이 적게는 건당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롯데그룹 전체 수요를 롯데정보통신 100% 자회사 '칼리버스'가 담당하게 되면 연간 수십~수백억원의 신규 매출이 2022년부터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 셔틀버스

동사의 자율주행관련 C-ITS기술은 카메라나 라이다에서 받은 신호가 아닌 신호등과 다양한 교통시설에서 보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지하여 판단하는 차량제어 기술로서, 향후 동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사업 수주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4Q21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687	26.9	14.8	2,574	4.4
영업이익	142	41.5	0.1	137	3.2
세전계속사업이익	139	72.3	-2.9	134	3.5
지배순이익	105	50.8	-0.9	108	-2.4
영업이익률 (%)	5.3	+0.6 %pt	-0.8 %pt	5.3	0
지배순이익률 (%)	3.9	+0.6 %pt	-0.6 %pt	4.2	-0.3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매출액	8,457	8,495	9,581	11,255
영업이익	411	388	515	659
지배순이익	546	299	428	506
PER	11.8	18.1	12.6	11.1
PBR	1.7	1.3	1.2	1.2
EV/EBITDA	5.5	6.4	4.9	3.8
ROE	14.8	7.4	10.0	11.0

자료: 유안타증권

그룹 SI 사업의 변화: SI 기업들의 자체 성장 노력

SI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설비, 인력, 하드웨어 등을 관리, 운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IT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주는 그룹 SI사로서 롯데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IT 인프라 변환/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실제로 제조/물류 등의 전통산업 중심의 롯데그룹이 스마트팩토리, 물류센터자동화, 무인점포,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동사는 그룹 SI사로서 수혜를 받았고, 동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롯데그룹의 디지털로의 변화의 확실한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동사 실적은 동종 그룹 SI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롯데그룹 전체 성장에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SI 기업 YoY 성장률 비교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오토에버	한화시스템	신세계 I&C	평균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주
2019	6.8%	10.3%	36.9%	22.1%	19.0%	4.1%	22%
2020	2.8%	-0.6%	6.3%	5.3%	3.4%	0.5%	3%
2021 3Q	21.6%	27.6%	49.9%	10.9%	27.5%	8%	11%

자료: DART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동사의 성장률은 아래와 같이 동종 기업 대비 낮은 기업가치 평가로 나타났고, 2021년 주가수익률도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10%(12/30)를 기록하였다.

그룹 SI 기업들 밸류에이션 비교

	P/E			EPS Growth			P/B			ROE			P/S		
	2020	2021E	2022E	2020	2021E	2022E	2020	2021E	2022E	2020	2021E	2022E	2020	2021E	2022E
현대오토에버	44.3	40.9	35.4	5.5	16.2	15.4	5.0	5.3	4.7	11.8	13.6	14.5	2.3	1.8	1.6
한화시스템즈	27.1	33.1	34.6	N/A	N/A	-4.4	1.9	1.8	1.8	7.0	6.2	5.3	1.8	1.5	1.4
삼성에스디에스	26.1	17.9	16.7	-39.8	56.4	7.3	1.8	1.7	1.6	7.2	9.9	9.9	1.1	0.9	0.9
POSCO ICT	25.0	N/A	25.7	-77.9	-410.6	239.8	2.5	2.9	2.6	10.3	-7.6	10.7	1.0	1.2	1.1
신세계 I&C	4.9	9.7	8.8	521.2	-50.8	10.9	1.2	1.2	1.0	29.5	14.8	13.8	0.7	0.6	0.6
평균	25.5	25.4	24.3	102.3	-97.2	53.8	2.5	2.6	2.4	13.2	7.4	10.8	1.4	1.2	1.1
롯데정보통신	13.6	12.1	11.3	-46.0	43.0	7.0	1.2	1.2	1.1	9.4	10.1	10.1	0.6	0.5	0.5

자료: Bloomberg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진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IT투자가 지연/연기된 이유도 있겠으나, 그룹 SI수요 자체의 성장률이 시장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그룹 SI 수요 부진에 따른 SI시장 성장 정체는 롯데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주요 그룹 SI 기업들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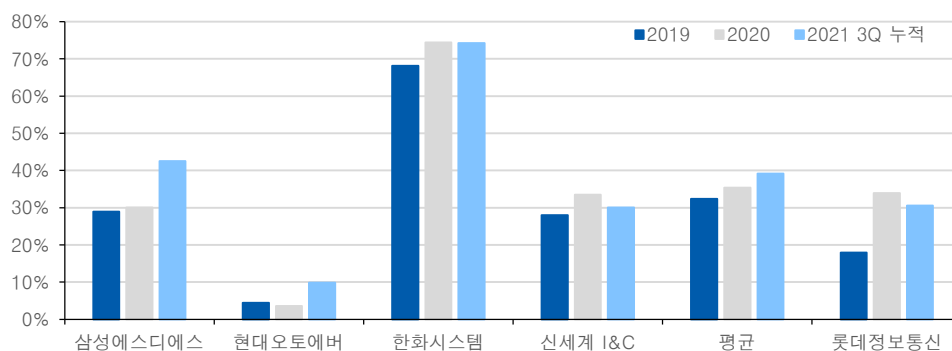
이러한 그룹 SI 사업 정체를 타개하기위해 삼성에스디에스(018260)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 중 그룹 SI가 아닌 물류BPO 매출 비중을 45%(2019), 52%(2020), 57%(3Q21누적)로 매년 증가시키고 있고, 대외(Non Captive) 매출 비중도 29%, 30%, 4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존 그룹 SI사업의 정체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대 오토에버(307950)의 경우도 네비게이션 제작업체 현대엠엔소프트와 합병하면서, SI의 신사업이 추가되었고, 대외 매출 비중도 3.6%(2020)에서 9.9%(3Q21누적)로 급증하였다.

한화시스템(272210)은 일찍부터 방산부문에 특화하여, 전체 매출 중 SI매출 비중은 29%(3Q21)에 불과하고, 대외매출 비중은 74%에 이른다.

롯데정보통신처럼 모 그룹이 유통회사 중심인 신세계 I&C(035510)의 경우도 게임 유통 등 그룹 SI사업 외 사업을 영위하며, 순수 SI(IT서비스)매출비중은 54%, 대외 매출 비중은 30%에 이르고 있다.

그룹 SI 기업들의 Non Captive(대외매출) 비중 연도별 추이



자료: DART

롯데정보통신도 기존의 정체되어 있는 그룹 SI수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2019년 7월 현대정보기술을 인수하여, 대외 매출 비중이 2018년 16%에서 2021년 3분기 누적 31%까지 증가하였다.

동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존 경상적인 그룹 SI 매출과 다른 새로운 사업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사가 최근 투자한 신사업인 (1) 전기차 충전사업 (2)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3) 자율주행차 사업 세가지를 분석하고, 동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전기차 충전사업

동사는 2021년 10월 전기차 충전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시장내 2~3위 업체인 중앙제어(주) 발행주식 71.14%를 69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중앙제어는 7kw의 완속 충전기부터 350kw의 초급속 충전기까지 개발, 제조, 설치, 유지보수까지 하는 업체이며, 2020년 공급된 신규 충전기 1.9만대 중 약 4,300여대를 공급한 시장점유율 약 20%의 업체이다. 2020년 매출액 438억원 중 약 50% 이상이 전기차 충전기 매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시장은 시그넷이브이(260870, 코넥스), 대영채비, 중앙제어 3사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을 제조하고 있다.

2020년 전기차 충전기 제조 회사 실적 비교				(단위: 억원)
	시그넷이브이	대영채비	중앙제어	
매출액	619	376	438	
영업이익	35	14	3	

자료: DART

국내 전기차충전기 시장은 급속충전기 919기(2016년) → 9,805기(2020년), 완속 1,095기(2016년) → 54,383기(2020년)로 국내 전기차 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계획(추정)에 의한 2025년 국내 순수 전기차 보급대 수(하이브리드차량 제외)를 113만대 가정하고, 202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 2.1대를 동일하게 가정하면, 2025년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약 54만여기에 이른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도 2025년까지 거주지, 직장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50만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0.5% (2020년) → 5% (2022년) → 10% (2025년) 로 증가 계획이며, 기축건물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의무 비율을 0% (2020년) → 2022년 공공건물 2% → 2023~2025년 민간 건물(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소유건물, 아파트 100세대 이상) 2%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기 시장 전망					(단위: 대)
	2016	2020	2025E	2030E	
전기차	10,855	134,962	1,130,000	3,000,000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	5.7	2.1	2.1	2.1	
전기차충전기	2,014	64,188	537,429	1,426,802	

자료: 국토교통부, '제 4 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2021. 2, 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

이는 2025년까지 해마다 약 9.4만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증가한다는 예상이고, 금액으로는 연간 약 3,600억원(완속충전기 단가 200만원, 급속충전기 단가 2천만원, 비율 9:1 가정)이 매년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한 중앙제어의 '전기차충전기 제조' 관련 매출액은 현재 시장점유율 20%(2020년국내 신규 전기차충전기 1.9만대 중 중앙제어가 4,294대 보급)를 기준으로 해마다 약 700억원의 매출액이 신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기차충전기 사업은 현재의 충전기 개발/제조/설치/유지보수보다는 향후 롯데정보통신이 영위할 계획으로 있는 '충전기 운영사업'의 잠재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기차충전기 운영시장은 전기차 20만대 기준으로 약 800억원(= 20만대 X 한해 평균 운행거리 1만Km X 250원/kWh X (1/kWh당 평균연비 6.3km))으로 추정되며 2025년 1,130,000대 기준으로 연간 약 4,500억원 규모가 되어 롯데정보통신에게 연간 약 1,000억원 전후의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순수전기차 기준이며,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시장규모 및 동사의 매출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내연기관차 vs 전기차 연료비 비교

(단위: 원)

구분	휘발유차 (아반떼 1.6)	경유차 (아반떼 1.6)	전기차(아이오닉)		
			완속 (개인용)	급속	
				인하 전 ('16년)"	인하 후 ('21년)"
연비	13.1km/L	17.7km/L	6.3km/kWh	6.3km/kWh	6.3km/kWh
연료비	1,600원/L	1,400원/L	200원/kWh	313/kWh	293/kWh
100km 당 연료비	12,214	7,910	3,175	4,968	4,651

자료: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현재 중앙제어의 시장점유율 20%를 가정하였지만 롯데그룹이 보유한 전국 413개의 롯데슈퍼, 122개의 롯데마트, 32개의 롯데백화점, 22개의 아울렛, 수백여 롯데제열사 공장 및 건물주차장과 연계 시 시장점유율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오프라인 공간을 통한 전기차충전소 확대뿐 만이 아니라 롯데 온오프쇼핑과 연결된 포인트 연계는 다른 충전소 사업자와의 차별적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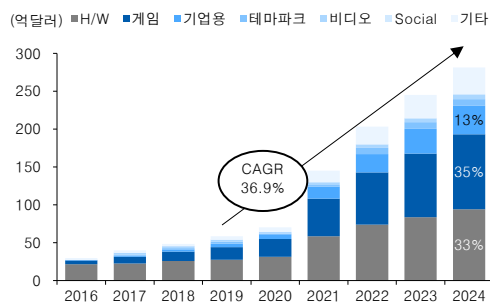
메타버스 콘텐츠 및 플랫폼은 기존 2D중심의 인터넷 환경에서 오클러스 등 VR기기 보급 증가, 5G 확대, 비대면 경제 및 레저 활동의 증가로 2022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는 인터넷 2D환경을 메타버스 3D 환경으로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며, 게임, 커뮤니케이션, 가상오피스, 쇼핑, 공연, SNS 등 우리 주변에 이미 가까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롯데정보통신은 2021년 7월 하이퍼 리얼리티 기술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업체 ‘칼리버스(구 비전VR)’를 100%인수, 향후 롯데그룹의 메타버스 플랫폼 전환의 실질적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커머스, 광고, 게임, 엔터 시장으로 롯데그룹은 전세게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사업, (홈)쇼핑 부문에서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신규분양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롯데건설), 메타버스 영화관(롯데시네마), 카드/캐피탈 등 가상 금융점포 등 전 롯데그룹 계열사에 도입/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구축/운영해 줄 수 있는 동사의 기술은 향후 동사의 새로운 성장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VR 전 세계 시장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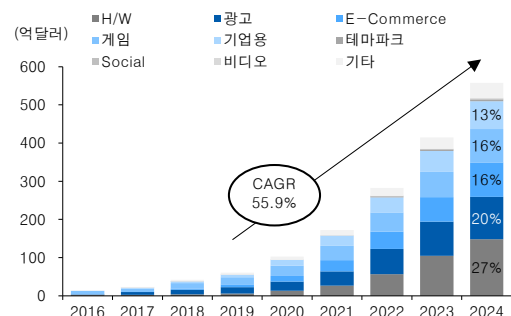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분야별 AR 전 세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 달러)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비용이 적게는 건당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롯데그룹 전체 수요를 롯데정보통신의 ‘칼리버스’가 담당하게 되면 연간 수십~수백억원의 신규 매출이 2022년부터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정보통신 - ‘칼리버스’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은 초고화질 콘텐츠 구현으로 현실 세계, 실제 인물과 동일한 3D 영상을 구현하는 하이퍼 리얼리티 영상구현 기술이며, 메타버스속 인물이 사용자의 ‘터치’, ‘음성’, ‘시선’에 반응하는 ‘딥인터랙티브’ 특허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롯데그룹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대외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다니엘 VR 팬미팅 영상



자료: 칼리버스

현대/기아차 VR 홍보 영상



자료: 칼리버스

3. 자율주행 셔틀버스

동사는 2021년 6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 임시 운영을 허가 받아 세종시와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석과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4단계의 차량으로서 뉴질랜드의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오미모(Ohmio Automation)’에서 차량을 수입, 롯데정보통신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을 적용하였다.

동사는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세종시 등으로부터 일정한 운행요금을 수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사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축적 및 자율주행운행 기술 확보가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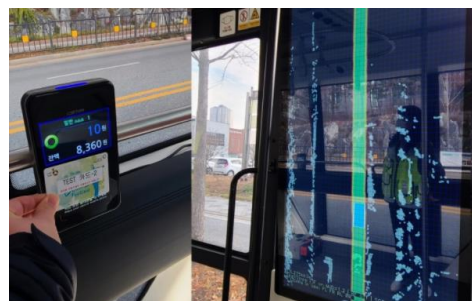
동사의 자율주행관련 C-ITS기술은 카메라나 라이다에서 받은 신호가 아닌 신호등과 다양한 교통시설에서 보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지하여 판단하는 차량제어 기술로서, 향후 동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사업 수주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행중인 세종시 자율주행 셔틀



자료: 언론 기사

운행요금 지불 카드리더기(왼쪽)/주변 장애물 인식 장비(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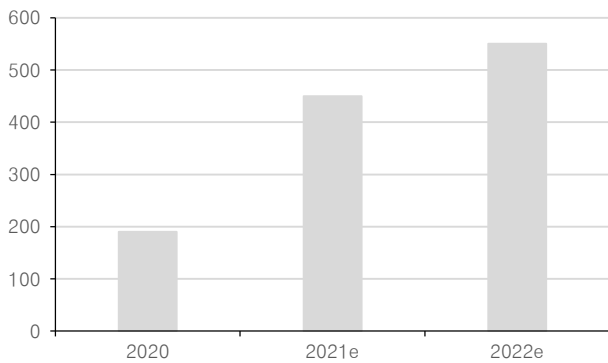


자료: 언론 기사

결론적으로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롯데그룹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SI매출이 20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1) 전기차충전기 제조 및 운영 사업 (2) 메타버스 콘텐츠/플랫폼 구축/운영사업 (3) 자율주행셔틀 및 이와 연결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동사의 성장률을 제고시킬 새로운 성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정보통신 스마트팩토리 수주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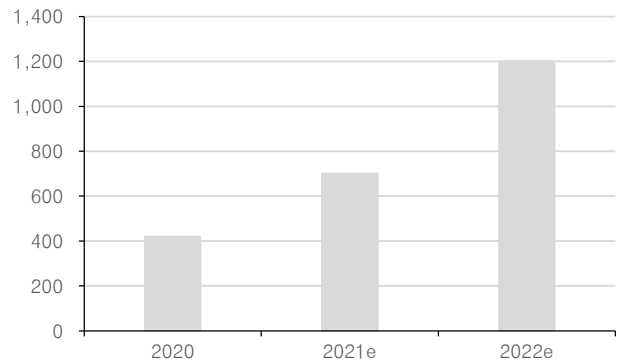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스마트물류 수주 및 전망

(단위: 억 원)



자료: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실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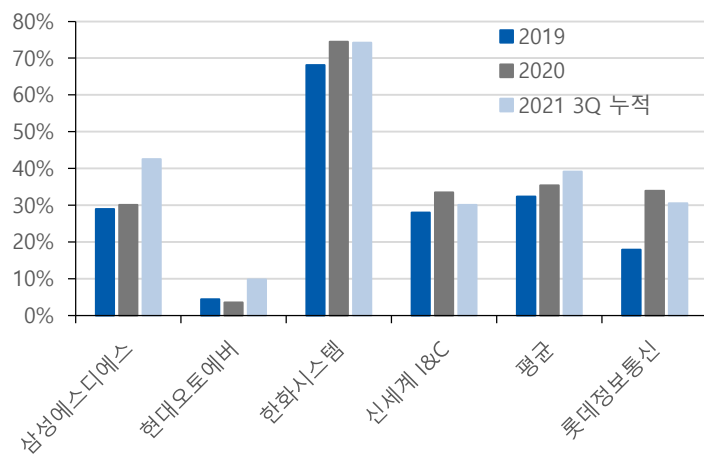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1Q 20	2Q 20	3Q 20	4Q 20	1Q 21	2Q 21	3Q 21	4Q 21E	2019	2020	2021E	2022E	2023E
매출액	1,975	2,194	2,209	2,117	2,179	2,374	2,341	2,687	8,456	8,495	9,581	11,255	12,931
QoQ(YoY)	5.9%	1.5%	7.7%	-11.0%	10.3%	8.2%	6.0%	26.9%	4.1%	0.5%	12.8%	17.5%	14.9%
SM 사업	377	393	387	381	387	384	379	395	1,702	1,538	1,546	1,615	1,680
QoQ(YoY)	-18.2%	-22.5%	7.1%	2.2%	2.7%	-2.3%	-1.9%	3.7%	-4.3%	7.0%	0.5%	4.5%	4.0%
SI 사업	1,598	1,801	1,822	1,736	1,792	1,990	1,962	2,292	6,754	6,957	8,035	9,640	11,251
QoQ(YoY)	13.8%	8.8%	7.8%	-13.4%	12.1%	10.5%	7.7%	32.0%	6.5%	3.0%	15.5%	20.0%	16.7%
영업이익	60	121	106	100	112	120	142	142	411	387	515	659	785
영업이익률	3.0%	5.5%	4.8%	4.7%	5.1%	5.0%	6.1%	5.3%	4.9%	4.6%	5.4%	5.9%	6.1%
SM 사업	41	44	44	43	44	43	43	42	191	171	172	185	193
영업이익률	10.9%	11.1%	11.2%	11.3%	11.4%	11.2%	11.4%	10.5%	11.2%	11.1%	11.1%	11.4%	11.5%
SI 사업	19	77	63	57	68	77	99	100	220	216	343	474	592
영업이익률	1.2%	4.3%	3.4%	3.3%	3.8%	3.8%	5.0%	4.4%	3.3%	3.1%	4.3%	4.9%	5.3%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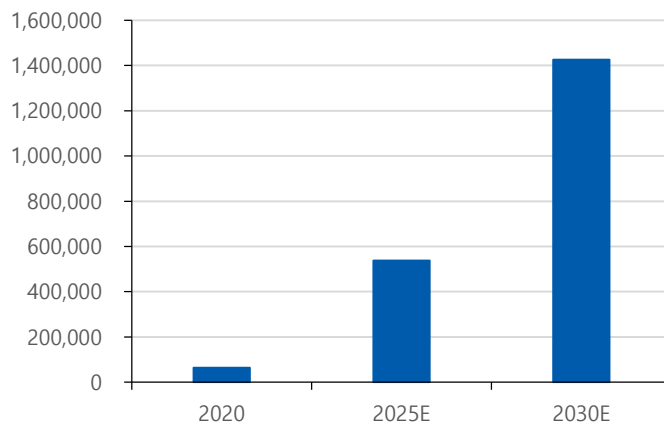
Key Chart

그룹 SI 기업들의
Non Captive(대외매출) 비중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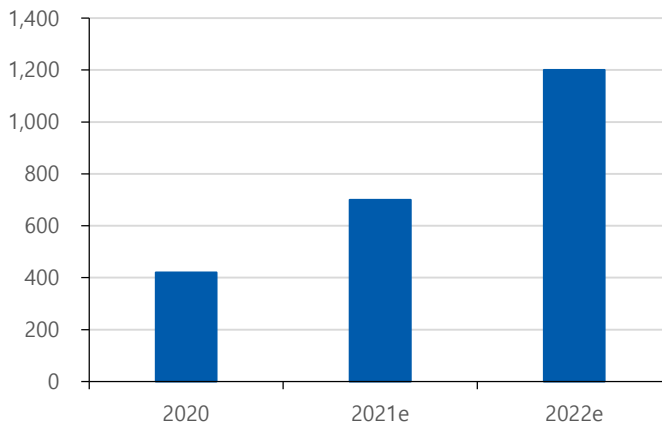
자료: DART

국내 전기차충전기 대수 전망



자료: 국토교통부

롯데정보통신 스마트물류
수주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롯데정보통신 (28694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8,457	8,495	9,581	11,255	12,931
매출원가	7,709	7,807	8,701	10,206	11,712
매출총이익	748	689	879	1,050	1,219
판매비	336	301	364	391	434
영업이익	411	388	515	659	785
EBITDA	786	764	933	1,154	1,295
영업외손익	46	-7	49	8	-1
외환관련손익	5	0	2	-1	-1
이자손익	20	12	0	-1	-2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22	-19	47	10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8	381	564	666	783
법인세비용	-72	82	136	160	188
계속사업순이익	530	299	428	506	595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30	299	428	506	595
지배지분순이익	546	299	428	506	595
포괄순이익	460	335	354	433	522
지배지분포괄이익	474	335	354	433	522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 현금흐름	1,174	-142	829	1,038	1,022
당기순이익	530	299	428	506	595
감가상각비	300	297	343	430	462
외환손익	-1	1	-2	1	1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273	-1,058	-46	21	-99
기타현금흐름	72	319	106	80	63
투자활동 현금흐름	-435	-231	-1,440	-1,416	-1,416
투자자산	-21	-9	-32	0	0
유형자산 증가 (CAPEX)	-269	-653	-618	-618	-618
유형자산 감소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146	431	-790	-799	-799
재무활동 현금흐름	-875	-148	166	166	166
단기차입금	-582	0	0	0	0
사채 및 장기차입금	-2	0	300	300	300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93	-106	-106	-106	-106
기타현금흐름	-198	-42	-29	-29	-29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1	-597	1,163	893	893
현금의 증감	-135	-1,118	718	680	664
기초 현금	1,632	1,497	378	1,096	1,776
기말 현금	1,497	378	1,096	1,776	2,440
NOPLAT	476	388	515	659	785
FCF	906	-795	211	420	404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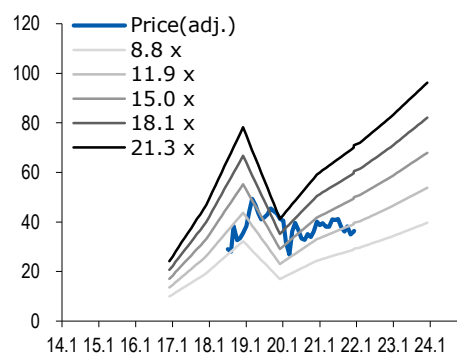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유동자산	3,818	2,833	2,664	3,588	4,498
현금및현금성자산	1,497	378	1,096	1,776	2,44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95	1,025	1,307	1,535	1,763
재고자산	69	134	96	113	130
비유동자산	3,148	3,662	3,976	4,099	4,206
유형자산	2,283	2,901	3,025	3,213	3,369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108	104	149	149	149
자산총계	6,967	6,495	6,640	7,687	8,704
유동부채	2,926	2,268	1,700	2,047	2,27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608	1,385	1,479	1,826	2,053
단기차입금	0	0	4	4	4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137	93	557	857	1,157
장기차입금	0	0	300	600	90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3,063	2,362	2,257	2,904	3,432
지배지분	3,904	4,133	4,382	4,783	5,272
자본금	770	770	770	770	770
자본잉여금	3,122	3,122	3,122	3,122	3,122
이익잉여금	677	909	1,179	1,579	2,069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3,904	4,133	4,382	4,783	5,272
순차입금	-2,143	-544	-834	-1,214	-1,578
총차입금	28	20	339	639	939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EPS	3,679	1,940	2,779	3,288	3,866
BPS	25,805	27,321	28,966	31,613	34,847
EBITDAPS	5,299	4,962	6,061	7,493	8,410
SPS	56,986	55,178	62,226	73,104	83,987
DPS	700	700	700	700	700
PER	11.8	18.1	12.6	11.1	9.4
PBR	1.7	1.3	1.2	1.2	1.0
EV/EBITDA	5.5	6.4	4.9	3.8	3.1
PSR	0.8	0.6	0.6	0.5	0.4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F	2022F	2023F
매출액 증가율 (%)	4.2	0.5	12.8	17.5	14.9
영업이익 증가율 (%)	5.5	-5.7	33.0	27.8	19.2
지배순이익 증가율 (%)	107.4	-45.3	43.2	18.3	17.6
매출총이익률 (%)	8.8	8.1	9.2	9.3	9.4
영업이익률 (%)	4.9	4.6	5.4	5.9	6.1
지배순이익률 (%)	6.5	3.5	4.5	4.5	4.6
EBITDA 마진 (%)	9.3	9.0	9.7	10.2	10.0
ROIC	36.1	15.7	12.9	15.4	17.9
ROA	7.8	4.4	6.5	7.1	7.3
ROE	14.8	7.4	10.0	11.0	11.8
부채비율 (%)	78.4	57.1	51.5	60.7	65.1
순차입금/자기자본 (%)	-54.9	-13.2	-19.0	-25.4	-29.9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7.7	188.9	136.7	92.7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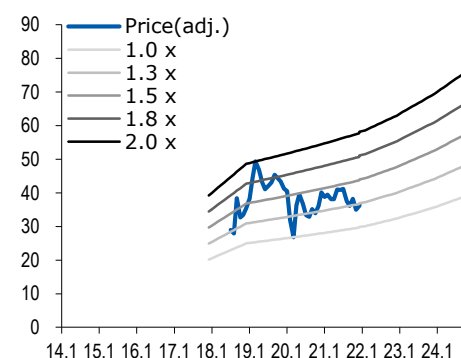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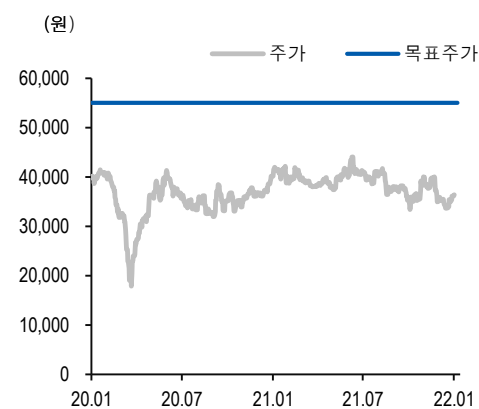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롯데정보통신 (2869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2-01-04	BUY	55,000	1년		
2020-02-19	1년 경과 이후		1년	-33.13	-19.91
2019-02-19	BUY	55,000	1년	-28.82	-6.73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0
Buy(매수)	93.3
Hold(중립)	6.7
Sell(비중축소)	0.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2-01-01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창영)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